

배중손[裴仲孫] 삼별초의 지도자, 진도에 쓰러지다

미상 ~ 1271년(원종 12)



1 개요

배중손(裴仲孫)은 고려 후기의 무장이다. 국왕 원종(元宗)이 몽골의 요구에 따라 개경으로 환도하려 하자 새 왕을 옹립하고 삼별초(三別抄)를 지휘하여 진도(珍島)로 탈주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였다. 배중손 개인에 대한 자료는 전해지는 것이 많지 않다. 이 글에서는 고려가 몽골에 항복하는 시점부터 배중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진도 함락 시점까지 고려의 정세 변화와 삼별초의 항쟁을 중심으로 서술하겠다. 배중손이 내렸던 극단적인 선택을 그가 마주했던 시대 환경 속에서 살펴보자.

2 30년간의 항쟁, 그리고 항복

13세기 초 몽골 초원에서 칭기스칸의 지휘하에 일어난 몽골은 무서운 기세로 사방을 공략했다. 유라시아 전역이 그 여파를 겪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고려도 예외는 아니었다. 긴장이 고조되던 끝에 1231년(고종 18) 8월에 몽골의 군대가 처음으로 고려를 침공했다. 끔찍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고려가 외국과 대규모 전쟁을 치른 것은 고려 전기, 즉 10세기 말~11세기 초반 거란과의 전쟁이 마지막이었다. 그 뒤로 ‘여진 정벌’이나 ‘묘청의 난’ 진압 등 군사 작전을 펼친 적은 있었으나, 국가 대 국가의 전

쟁은 200년 이상 없었던 일이었다. 더구나 상대는 파죽지세로 승승장구하던 몽골의 군단. 반면 고려는 1170년(의종 24)에 터진 ‘무신(武臣)의 난’ 이래로 정치가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며 국가 체제가 흐트러져 있었다.

몽골의 고려 침입은 이때부터 1259년(고종 46)에 양국 간에 강화가 맺어질 때까지 거의 30년에 걸쳐 벌어졌다. 연구자에 따라 회차 설정에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여섯 차례에 걸친 대규모 침입으로 설명한다.

왕실과 조정은 1차전 강화 직후 강화도(江華島)로 천도하여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러나 몽골군의 거센 공격에 백성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물론 귀주성(龜州城) 전투처럼 고려의 군대와 백성이 힘을 합쳐 끝까지 버텨낸 곳도 있었다. 관련사료 하지만 춘주(春州)처럼 패하여 끔찍한 살육이 벌어진 곳도 수없이 많았다. 관련사료 1254년(고종 41) 한 해에만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20만 명이 넘었고 살육당한 자는 헤아릴 수가 없었다고 전한다. 관련사료 고려는 이제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었다.

전쟁 중에도 양국은 외교적인 교섭을 계속하였다. 하지만 요구 조건의 간격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쉽게 결론이 나지 못했다. 고려 내부에서도 국왕과 무신집권자, 조정 신하들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더욱 복잡했다. 긴 진통 끝에 결국 1259년(고종 46) 고려는 태자를 몽골에 보내 강화를 맺었다. 긴 전쟁의 끝이었다. 하지만 아직 평화로운 시대는 오지 않았다.

3 뒤엎어진 권력구조, 그리고 혼돈의 고려 정계

우선 고려 정계의 상황이 복잡했다. 그리고 몽골이 고려에게 요구한 여러 조건들, 특히 강화도에서 나와 개경을 다시 도읍으로 삼으라는 ‘출륙환도(出陸還都)’ 조건이 거기에 얹혔다. 10여 년에 걸친 갈등, 그 끝에 배중손과 삼별초의 봉기가 일어났다.

한 해 앞으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자. 1258년(고종 45) 3월, 무신집권자였던 최씨정권의 4대째인 최의(崔瑄)가 살해당했다. 관련사료 수십 년 동안 권력을 쥐었던 최씨정권의 종말이었다. 이를 ‘무오정변(戊午政變)’이라 부르기도 한다. 정변을 주도한 것은 당시 최의와 갈등을 빚고 있었던 문신 유경(柳璥)과 무신 김준(金俊)이었다. 명목상으로는 왕정복고(王政復古), 즉 최고 권력이 국왕에게 돌아가는 일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사실상 무력을 쥔 김준이 여전히 무신집권자로 권력을 장악했다.

무신의 난이 터진 1170년(의종 24) 이래로 국왕은 실권을 상실하고 허수아비에 가까웠다. 100년 가까운 세월이었다. 김준도 지난 무신집권자들처럼 전권을 휘두르려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변수가 달라져 있었다. 바로 새 국왕 원종의 위상이었다.

이 혼란의 와중에 고려와 몽골은 강화를 체결하였다. 원종은 바로 몽골에 가서 강화를 맺고 돌아왔던 태자였다. 몽골에 간 사이 선왕 고종이 승하하여, 고려로 돌아온 뒤 새 국왕으로 즉위했던 것이다. 그런데 원종은 몽골에서 쿠빌라이를 만나 돈독한 관계를 다졌다. 쿠빌라이가 칸의 자리에 성공적으로 오르자 원종의 정치적 입지도 다져졌다.

그런데 고려와 몽골의 관계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원종은 몽골과의 약속을 이행하려 하였으나, 김준 등은 시간을 끌고자 하였다. 고려가 약속했던 출륙환도가 계속 지연되자 몽골은 고려를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1268년(원종 9) 무렵부터 몽골은 ‘6사(六事)’라 불리는 사안들을 이행하고 출륙환도할 것을 요구했고, [관련사료](#) 또 집권자인 김준을 몽골로 소환하려 하였다. 그러자 김준은 원종을 폐위시키고 더 먼 바다로 들어갈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관련사료](#) 원종은 또 다른 무신 임연(林衍)을 통해 김준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으나, [관련사료](#) 이듬해에는 임연에 의해 폐위를 당하고 말았다. [관련사료](#) 내부적인 권력 쟁탈전과 몽골에 대한 태도 차이에서 기인한 갈등이었다. 그러나 쿠빌라이 칸의 힘을 빌어 복위한 원종은 임연 세력을 제거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관련사료](#) 드디어 무신정권이 막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원종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개경으로 환도를 단행하였다. [관련사료](#) 하지만 여전히 평화는 멀리 있었다.

4 삼별초, 새 왕을 받들고 진도에 자리잡다

원종이 개경 환도를 단행하던 무렵부터 삼별초와의 갈등이 기록에 나타난다. 삼별초가 어떤 조직인가. 당시 고려의 최정예 부대이자, 역대 권력 쟁탈전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던 조직이다. 김준이 최의를 제거할 때, 임연이 김준을 살해할 때와 원종을 폐위시키고 새 왕을 옹립했을 때, 원종의 사주로 송송례(宋松禮)가 임연의 아들 임유무(林惟茂)를 죽일 때 모두 삼별초의 무력을 동원하였다. [관련사료](#) 몽골과의 전쟁 기간에도 이들은 각지에 파견되어 백성들을 규합하여 전투에 나섰다. 이 삼별초가 개경으로 환도하라는 원종의 명령에 반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5월 말의 기록에서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볼 수 있다. 5월 23일에 개경 환도일을 게시하자 삼별초가 다른 마음을 먹고 창고를 열어 물자를 나누어주었다고 한다. [관련사료](#) 원종은 25일에 상장군 정자여(鄭子璵)를 보내 삼별초를 설득하려 시도했고, [관련사료](#) 27일에 개경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29일에 장군 김지저(金之底)를 강화로 보내 삼별초를 해산시켰다. [관련사료](#) 이 때 김지저가 삼별초의 명적(名籍), 즉 명단을 가져가니 삼별초는 이것이 몽골에 전해질까 두려워하였다고 한다. [관련사료](#) 결국 6월 1일, 삼별초의 봉기가 터지고 말았다. [관련사료](#)

이 때 봉기를 주도한 사람이 바로 배중손이다. 당시 그는 장군(將軍)의 지위에 있었다. 고려 무반 조직에서 상장군과 대장군에 이어 세 번째 서열에 속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 이전에 배중손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의 집안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고려사(高麗史)』에 기록된 것이 없다. 이 때 배중손은 야별초지유(夜別抄指諭) 노영희(盧永僖)와 함께 난을 일으켰다고 한다. 배중손은 신속하게 두 가지 조치를 내렸다. 하나는 강화도를 단속하여 군사와 백성들이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왕족 중에 새 국왕을 옹립하는 일이었다. 배중손은 강화도에 부하들을 풀어 “몽골군이 대거 와서 사람들을 살육할 것이니, 무릇 나라를 도우려는 사람들은 모두 구정(毬庭)으로 모여라!”라고 외치게 하였다. 여기에 호응하여 온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어 삼별초는 무기고를 열어 병사들에게 병기를 지급하고 방어 태세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승화후(承化侯) 왕온(王溫)을 새 왕으로 세웠다. 개경에 있는 원종을 부정하고 새 왕을 모신 것이다. [관련사료](#)

하지만 강화도의 상황은 배중손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조정의 관리들부터 말단의 병사들과 일반 백성들까지, 강화도를 탈출하여 개경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장군 이백기(李白起)는 난에 동참하라는 권유를 거절하여 죽임을 당했다. 장군 현문혁(玄文奕)은 가족을 데리고 배에 타 개경으로 도망쳤는데, 삼별초의 배 4~5척에게 추격을 당한 끝에 부상을 입고 사로잡혔다. 그의 부인과 두 딸

은 강에 뛰어들어 죽었고, 사로잡힌 현문혁은 결국 탈출하여 개경으로 빠져나갔다. 정사를 총괄하라고 승선(承宣)에 앉힌 직학(直學) 정문감(鄭文鑑)은 지시를 거부하고 동참을 거부하고 물에 투신하여 죽었다. 참지정사(參知政事) 채정(蔡楨)·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김연(金鍊)·도병마녹사(都兵馬錄事) 강지소(康之邵)는 기마병의 추격을 뿌리치고 강화도를 탈출하였다. 최의 제거에 공을 세웠으나 김준에 의해 유폐되었던 명망 있는 문신 유경도 탈출하여 개경 조정에 합류했다. 삼별초는 배를 풀어 사람들의 탈출을 막으려 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배중손은 잔여 세력을 모아 강화도를 떠났다. 무려 1,000여 척의 선박을 모아 병력과 재물, 사람들을 싣고 이동했다고 하니 그 세력이 상당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고려사』에서는 이를 상황이 불리하여 도망쳤다고 기록했고, 연구자에 따라서는 작전상 근거지를 옮긴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개경의 원종은 당대의 명장 김방경(金方慶)에게 명하여 몽골군과 함께 삼별초를 추격하도록 지시했다. 김방경은 배중손의 선단을 영흥도(靈興島)에서 따라잡았다. 그러나 몽골군의 지휘관 송만호(宋萬戶)가 두려워하여 공격하지 않아, 배중손의 선단은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다. 이 때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도망쳐 돌아왔다고 한다. [관련사료](#) 그리고 두 달 뒤인 8월, 배중손 휘하의 삼별초는 진도(珍島)에 도착하여 거점을 확보하였다. [관련사료](#)

이때부터 이듬해 5월까지 10개월 동안 배중손은 진도를 거점으로 삼별초를 지휘하여 개경 조정 및 몽골군에 맞서 싸웠다. 이들은 진도에 둘레 13km에 이르는 석성을 쌓고 궁궐을 지었다. 지금 남아있는 용장성(龍藏城) 유적이 바로 이 곳이다. 삼별초는 제주도를 비롯해 광범위한 해안 지역에 세력을 미치는 한편, 일본에 서신을 보내 손을 잡을 시도도 하였다. 비록 승화후를 국왕으로 모셨으나, 당시 삼별초 세력의 실질적인 리더는 배중손이었음이 분명하다.

5 용장성의 꿈, 백사장에 흩어지다

원종은 배중손의 반란을 몽골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관련사료](#) 9월에는 김방경에게 몽골의 장수 아해(阿海)와 함께 1천의 명사로 진도를 공격하게 하였다. [관련사료](#) 그러나 이 공격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 같다. 오히려 11월에 김방경은 삼별초와 내통했다는 혐의로 한 때 투옥되기까지 하였는데, 배중손의 정보 공작이었을 가능성도 보인다. 혐의가 풀려 복귀한 김방경은 12월에 다시 진도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진도의 삼별초는 이를 포위하여 큰 타격을 입혔다. 삼별초의 기세는 크게 올랐고, 여러 지역에서 삼별초에 호응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듬해인 1271년(원종 12) 봄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였다. 1월에는 원에서 보낸 조서도 거부하던 삼별초가, 3월에는 원에 항복할 뜻을 보였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관련사료](#) 전라도를 자신들의 영역으로 인정받고 원에 직접 예속되기를 청했다는 것이다. 관련된 다른 기록이 없어서 이 상황을 자세히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4월에 원은 진도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결정했다. [관련사료](#) 당시 원이 보낸 조서에서는 6천의 병사를 징발하여 진도를 공격하도록 지시했다. [관련사료](#) 그리고 5월, 원에서 온 홍차구(洪茶丘)가 이끄는 500여 명의 부대가 먼저 진도를 공격했다. 이어 수군 300명이 가세했고, 다시 100여 척의 배에 탄 삼군(三軍)이 도달했다.

그리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관련사료 초반에는 배중손의 삼별초군이 유리했던 것 같다. 수차례에 걸친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내었고, 전함 2척을 포획하여 관군을 섬멸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진도에서 삼별초는 패배하고 말았다. 『고려사절요』에서는 “적들이 관군을 얕보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가, 관군이 본격함에 이르러서는 적들이 모두 처자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기록하였다. 이 기록처럼 방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전력의 열세 때문이었을까. 어쨌든 이 패배로 진도에 있었던 백성들과 재물은 모두 몽골군에게 노획되고 말았다. 국왕으로 옹립되었던 승화후도 홍차구에게 살해당했다.

전투의 와중에 배중손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록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도 전투 무렵부터 그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역시 이 때 전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많다. 지역 전승에서는 남도석성(南桃石城)에서 싸우다 패하고 굴포 해안 쪽으로 이동하다가 전사하였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이곳에 배중손을 기리는 사당이 존재했고, 도중에 훼손되었으나 현재 다시 동상과 사당을 세워두었다.

진도에서 탈출한 삼별초는 제주도로 이동하여 다시 전열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한동안 다시 몽골 및 고려 조정에 대항하여 항쟁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배중손의 싸움은 아마도 이곳 진도에서 끝이 났다. 삼별초에 대한, 그리고 배중손에 대한 평가는 여럿으로 나뉜다. 조정에 대한 반란군, 외세에 끝까지 저항한 투사, 혹은 어떻게든 생존을 도모했던 한 사람 등. 어쩌면 그 모든 것이 배중손의 삶의 한 순간씩을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용장성의 석성에 올라 삼별초를 호령하며 바다를 바라보았을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